



Special Theme
 도전과 소망의 목록,
 버킷리스트

Focus | 2011년 전국대의원대회
People | 배우 김여진
클로즈업 | 서부지방본부
프로포즈 | 강북지방본부 전국지부



[뽐]의 옛말
 두 발을 모아 몸을 솟구쳐 앞으로 나아가는 몸짓을 뜻하는 말로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넘어서는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상징

KTU KT 노동조합 (463-71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www.KTTU.or.kr T | 031)727-2820 F | 031)727-4815



식품 선택의 새로운 기준, 푸드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항공 마일리지는 많을수록 유익하죠. 그런데 많을수록 해가 되는 것은?
‘푸드 마일리지(Food-mileage)’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란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총 이동거리를 말합니다. ‘식품무게(ton)×이동거리(km)’ 로 계산하죠.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5211ton·km로
영국에 비해 2배가 높고, 프랑스 보다는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겠죠.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5kg의 푸드 마일리지는 56,635ton·km,
온실가스 배출량은 2,590g입니다.
반면 제주도 감귤의 푸드 마일리지는 2,96ton·km,
온실가스 배출량은 357g이죠.

식품의 수송량이 많을수록, 이동 거리가 멀수록
푸드 마일리지는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입 농산물과 같이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오랜 보존 기간으로 인해
식품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오렌지 등 대표적인 수입 과실류는
수출입 과정에서 고독성 살충제와 방부제 등이 다량 사용되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동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그것은 바로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식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해,
장보기 습관부터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CONTENTS Vol.6

- 04** KTTU FOCUS
2011년 KT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 08** KTTU NEWS

+ SPECIAL THEME

- 12** COVER STORY
버킷리스트
- 16** TALK TALK TALK
- 20** PEOPLE
배우 김여진
- 24** REPORT
화술 노하우

+KTTU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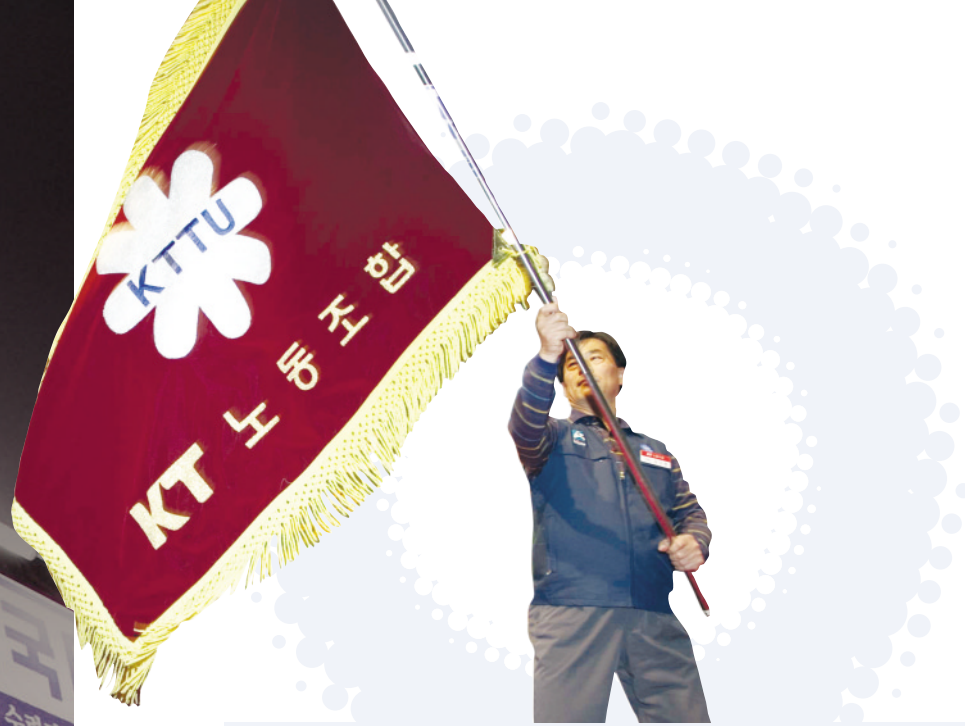
- 26** CLICK
한 발 더 뛰는 농구, KT소닉붐 우승!
- 28** ISSUE
故 최고은 작가를 통해 살펴본 저임금 노동
- 32** RESEARCH
복수노조에 관한 세 가지 흐름과 세 가지 변화
- 36** TREND
일상과 비즈니스의 모습을 바꾼 아이패드 혁명

+ KTTU FAMILY

- 40** 클로즈업
서부지방본부
- 46** 프로포즈
강북지방본부 전곡지부
- 50** KTTU 동행
특별기동팀 김은배 조합원
- 52** 해피투게더
KT농구동호회
- 56** 행복한 오후
지리산에코투어

권익신장과 희망찬 미래를 위한 2011년 KT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2011년 KT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3월24일(목)~25일(금) 1박2일간 지리산 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전국 각지에서 600명의 대의원과 간부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강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2010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2011년 사업계획, 법인설립 등 3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는 등 한해를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됐다.



◎ 결속력 돋보인 전국대의원대회

3월 24일 오전 전남 구례의 지리산 수련관.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대의원들이 입소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지리산의 맑은 기운을 받으며 시종일관 진지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12개 지방본부에서 모인 대의원과 조합간부들의 강한 결속력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행사는 이석채 회장 및 경영진, 내·외빈의 입장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며 대강당에서 시작했다. 오후 2시, 장인태 조직처장의 사회로 개회가 선언되면서 '한통노조가'를 힘차게 부르는 가운데 깃발이 입장했다. KT노동조합 10대 집행부 3번째인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는 특히 의례가 진행되면서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 이어져 한층 엄숙함을 더했다. 대회에는 또한 노동조합 전직 위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KT그룹노조 위원장들, 그리고 함께하는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장병훈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정종화 위원장, 서울대분당병원노동조합 이경재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한편 공로패 전달은 최상용 KT노동조합 초대 위원장에게, 표창패는 전국 15개 우수지부와 17명의 우수조합원들에게 수여됐다. 최상용 위원장은 "옛 생각이 많이 난다."며 "동지들의 성공적인 대의원대회와 KT의 발전을 기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수상한 우수지부에는 표창패와 상금50만원, 우수사원에게는 표창패와 상금10만원 그리고 케이크가 각 가정으로 배달됐다.

이어 김구현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올해 KT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전임자임금지금지,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린 단협갱신, 조직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조합원의 권리를 드높여 새로운 노동역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개혁과 변화도 좋지만 대규모 조직개편, 잦은 인사이동, 불합리한 인사고과, 조합원을 불안케 하는 행위 등은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은 조직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변화를 유도할 것"을 다짐하고, "지난 2년간의 교섭경험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인상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정영수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KT노동조합이 29년의 역사를 맞이했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조합의 지난 자리를 되돌아보고 2011년 사업을 계획하는 자리다. 실질적 권리 획득으로 올해는 조합원이 주인으로 바로 서는 멋진 KT노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을 기원 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이석채 회장은 축사에서 "KT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KT보다 더 강하다"며 "지난 2년간 KT가 이룩한 성과 하나하나가 김구현 위원장과 노조간부들의 리더십, 3만여 KT 전 직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며 "KT는 전 임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브랜드혁신과 스마트기술폰을 일으키며 지난해 최초로 매출 20조를 돌파하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앞으로 KT그룹사 5만 가족이 KT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KT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며, 고객들은 KT서비스를 최고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경영진의 책임을 약속했다.



◎ 단결없이 희망없고, 투쟁없이 미래없다”

‘또다시 앞으로’를 힘차게 부르며 마무리 된 1부 행사는 곧이어 약 30분간 동영상 시청하는 순서로 이어 졌다. 이 시간에는 그간의 KT 노동조합의 활동과 집행부의 활약상, 2010년 단체교섭 등이 집약되어 상영되어지면서 노동조합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휴식 후 3시 45분부터 진행된 2부 행사는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종일관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된 2부 행사에는 대의원들의 힘찬 결의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대의원들의 전적인 신뢰가 무엇보다 돋보였다.

안건은 2010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2011년 사업계획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 등 3건으로, 대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 됐다. 특히, 법인설립승인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을 부가했다. 이어진 기타 토의 시간에는 타임오프,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이 의건으로 개진됐다. 서울동부NSC 김명수 대의원과 엔지니어링사업단 문건성 대의원은 “금년

“ 많은 변화가 예고된
2011년 집행부사업계획에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결의의 장 ”



에는 조합에서도 준비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 임금협상, 복수노조를 대비한 위원장님의 결의를 촉구 드린다”고 했다. 이에 의장을 맡은 김구현 위원장은 “법적 저촉사항이 많지만 대의원대회가 끝나는 즉시 전담반을 구성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대 집행부 마지막 3년차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집행부는 현장조합원들의 지지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감사하다. 10대 집행부에 무한한 힘을 실어준 것은 조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는 인사와 함께 현장과 함께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전국 대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인간다운 업무환경이 보장되는 희망의 KT를 만들 것’, ‘노동자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힘쓸 것이며, 조직을 와해하는 불온한 움직임은 차단할 것’, ‘2011년 단체교섭이 조합원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고 승리할 것’을 결의하고 오후 5시, 힘찬 박수와 함께 2011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KT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MINI 인터뷰

이른 새벽부터 달려온 전국 각 지역의 대의원들은 지리산의 정기만큼 투명한 정신과 사명감으로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 임했다. 새로운 결의의 장으로 거듭난 올해 대의원대회를 마친 소감을 현장 대의원들의 목소리로 담았다.



강북지방본부 서울북부NSC지부 안길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이번 대의원대회는 어느 때보다 집행부가 용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인상적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요구 사항이라면, 조합원들의 인사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집행부가 헤아려줬으면 합니다. 사측에서는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데, 그 기준은 시험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노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합원들이 바라는 변화이자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 아닐까요.”

집행부에 대한 신임 돋보여... 더욱 효율적인 ‘토론의 장’ 부탁

“현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라인업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결집력을 다지는 분위기가 돋보이는 대의원대회였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대회인 만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욱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면 해요. 특히, 예산감사나 결산 등 유인물로 가능할 수 있는 보고서는 미리 공지를 해서 사전에 꼼꼼히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면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대회 당일 자료를 나눠 주니까 우왕좌왕 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스킵할 것은 하고 핵심적인 부분만을 짚을 수 있지 않았을까... 향후에도 현 집행부가 대의원들이 믿어주는 만큼 빅이슈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집행하고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구지방본부 경북무선지부 이주하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중심의 집행부가 되었으면...”

“올해는 임금협상, 타임오프, 단협갱신, 복수노조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대의원들이 현 집행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힘을 실어주는 대의원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대의원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대회는 지지를 받는 만큼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바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토론보다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합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본사 지방본부는 조합원 수가 약 540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의 가시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현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일터이자 삶입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보내는 만큼 집행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현장 정서를 몸으로 겪으면서 결과를 일구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지방본부 자산센터지부 전인식

올해, 세계 여성의날 100주년 인권과 생존권 보장 촉구 노동자 처우개선 · 성상품화 · 양성평 문제 등 다양한 목소리



● 지난 3월 8일, 한국여성계에서는 올해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들이 연합해 개최한 '해피 위민스 데이(HAPPY WOMEN'S DAY)'는 지난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명동, 강남, 신촌에서 플래시몹(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을 통해 여성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내건 구호는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사무처장은 "빵은 여성의 생존권을 뜻한다. 열심히 일해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에 봉착해있는 여성들이 많다. 장미는 여성의 인권을 표현한 말로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번 플래시몹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여성의날을 맞아 여성들에게 축하한다고 전하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하해요'란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기념식에서 시민단체 '너머서'의 공동대표인 김성희씨가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김 공동대표는 서울YMCA의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는 '허스토리 텔링(Herstory Telling)'을 전했다. 희망을 품고 한국에 시집왔지만, 남편에

게 돈 없어 팔려온 사람 취급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신부이야기, 처음 한 달 월급만 받고 나머지 월급을 받지 못한 키르키즈스탄 여성노동자, 다문화자녀로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며 겪는 이주여성들의 고달픈 삶과 희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날, 인권운동의 최전방이라 불리는 노동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청소용역, 가사돌봄, 환자간병 등 분야에 간접적으로 고용된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번 여성의날을 맞아 노동현장의 20대 과제를 담은 여성노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간접고용, 특수고용,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들이며, 가장 열악한 구조 속에 놓여있다. 대학교 청소용역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90여만 원을 받고 있으며 원청인 학교가 용역업체를 바꾸면 사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해고를 당한다"고 말했다.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노동3권 △최저임금 월100만원 △가사간병노동자 4대보험 적용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전후 휴가와 모성권 확보 등으로 일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간병 등 돌봄 영역의 일꾼들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성숙한 사회, 예외 없는 사회보험 적용과 사회임금 확보로 돈 걱정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주장했다.

제2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열려 3월 주요행사 및 전국대의원회의 현안사항 논의



● 노동조합은 3월2일(수)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2차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 중 주요 행사인 △전국여성국장 워크숍 △전국조직국장 회의 △전국대의원대회 등 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세부사항들을 공유했다. 특히 2011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하여 지방본부별 진행사항 및 우수지부와 조합원 표창 등에 대해 세부지침과 현안사항을 집중 토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북지방본부 소속 암 투병 조합간부돕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3월 9일 제1차 전국조직국장회의 열려... 전국대의원대회 및 현안사항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1차 재정국장회의(3.10)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전담반 운영(3.14~3.18) 사항을 공유하고 나서, 지리산 수련관에서 개최하는 ▲2011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3.24~3.25) 행사 계획과 세부지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전국대의원대회 일정별 입소현황을 검토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지방본부별 단체입소 시 유의사항과 우수 지부 및 우수 조합원 표창 기준과 세부내용에 대해 확인했다. 장인태 조직처장은 전국대의원대회 행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조직국장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후, 많은 인원이 모이는 큰 행사이니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줄 것을 당부했다.

KPI 관련 노사협의회 개최 노동조합 의견 적극 반영키로



● 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8일(화) 전사 및 현장 KPI 설정관련 노사협의회를 열고, 지난 1월부터 계속된 전사 KPI 실무협의(4회), CIC별 실무협의(6회)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KPI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안을 수정했고, 조합에서 요청한 여러 사항들을 반영하여 최종 KPI 설정을 위해 노사간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지나친 비용절감을 우려하여 '홍부문 이익 가중치를 하향 조정'토록 했고, 현장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상면임대수의 관련지표를 GSS부문만 반영'토록 했다.또한, CS평가를 인입호 감소로 측정하는 것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홍부문 평가를 회사에 유익하지 않은 'Negative VOC 개선'으로 반영하며, 실적왜곡 등은 평가 불이익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장의견을 수시 수렴하여 CS 지표로 인한 현장의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키로 했다.아울러 CS 관련 홍부문의 VOC가 네트워크로 전이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네트워크와 홍부문 VOC의 명확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기준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특히, 사업경비에 긴급출동비 부분은 ▲부문 네트워크 원가절감 평가 시 '긴급출동비'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장애목표 부여 시 현장조직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부문 장애목표는 B급 이상만 부여키로 했다.

고객만족! 발로 뛰겠소! 춘천NSC지부, 춘천시민 건강달리기대회 참가



● KT강원지방본부 춘천NSC지부(지부장 박세우)는 지난 3월 1일 삼 일절을 맞이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조직활성화로 굳게 다져진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바탕으로 전 국민이 염원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하여, 강원지역 젊은신문 강원일보사가 주최하는 "3.1절 경축 춘천시민 건강달리기대회"에 참가하였다.

강원도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일동은 "하나된 춘천! 새로운 KT"의 모습을 상징하는 olleh 조끼를 입고, "고객만족! 발로 뛰겠소!", "ACTION Leader 돌격! 춘천!"을 가슴깊이 새기며, 강원인의 달리기 대축제에 참가한 춘천시민 3,000여명과 힘찬 레이스를 펼쳐, 지역과 함께하는 국민기업 olleh kt의 홍보와 고객유치 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11년도 건강검진 4월~9월 시행 2010 단체교섭 합의에 의해 검진수가 4만원 상승효과



●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1년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래 -

1. 검진수가 : 동결 (* 2010년 대비 공단지원금 미정산에 따른 1인당 4만원 상승 효과 : 2010 단체교섭 합의사항)
2. 검진기간 : 2011년 4월 ~ 9월
3. 검진대상 : 전직원 및 건강보험증 등재 배우자(청경/계약직 포함)

구분		검진비용
KT	만40세 이상 사원	20만원
	만40세 이상 사원	15만원
	배우자	12만원
구KTF	만35세 이상 사원 및 배우자 교대근무자 (1.1 이후 신규자 제외)	30만원
	만35세 미만 사원 및 배우자	10만원

4. 검진항목 : 개인 맞춤형 검진 시행 (선택 검진항목 최대 확대)
5. 검진관리시스템 보완 : 타기관 검진 요청시 '승인가능' 추가
6. 검진기관 선정시 유의 : 공단에서 지정한 5개 특정암 이상 가능기관 및 회사 매출기여도 고려

2011년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시기 안내 전사+부문+팀성과 적용... 1, 3, 5, 7, 9, 11월 지급



●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1년 성과급 규모 및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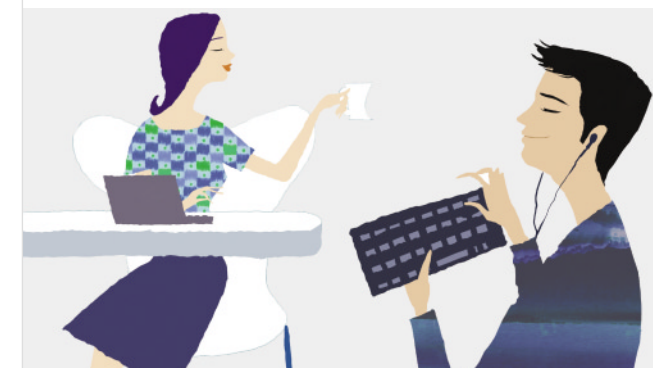
- 아 래 -

1. 전사성과급 : 361% ± 50%
※ 전사성과급 361% - 수익성과급 310% (영업이익률 10% 반영) + 성장성과급 51% (매출성장률 6% 반영)
2. 부문성과급 : 300% ± 50%
3. 팀성과급 : 150% ± 50%
4. 지급산식 : 월 기준급 × 지급률
5. 시기 :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고객서비스직군 성과급 지급적용 개정사항 >

1. 지급규모 : 월 기준급의 811% (개통 486.6% + 판매 324.4%) + α
2. 지급산식 : 자료실 - 「문서/정책」 참고
3. 지급일정 : 일반직원과 동일
4. 적용시기 : 2011년 1월부터
※ 자세한 성과급 산정 규모와 지급시기에 따른 지급률은 홈페이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상반기 창업지원휴직 시행 최소 1년 6개월 ~ 최대 3년 6개월간 개인이 희망하는 창업분야 준비



●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1년 상반기 창업지원 휴직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대상 : 제한없음 (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창업분야)
 2. 지원자격
 - 명예퇴직 자격이 되는 직원 중 희망자 (정년 잔여기간 1년 6개월, 최근 6개월 이상 정상근무자, 교육파견 복귀자는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3. 휴직기간 및 처우
 - 최소 1년 6개월 ~ 최대 3년 6개월
 - 의무휴직기간 : 1년 6개월
 - 본인 희망에 의해 최장 2년간 추가 휴직 가능(6개월 단위)
 - 급여 :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간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만 지급
 -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후의 기간은 무급 휴직
 4. 향후일정
 - 희망자 접수 : ~ 4.15
 - 심의(예심의·본심의) : 4.18 ~ 4.26
 - 협약체결 : 4.27 ~ 4.28
 - 휴직발령 : 2011년 5월 1일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문서/정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도전과 소망의 목록

버킷리스트 ;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기

어느 날, 한 남자가 의사로부터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심각한 간경변으로 석 달 뒤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망선고를 들은 것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 그는 한동안 어쩔 줄을 몰라 하다 곧이어 마음을 다잡은 뒤 평소의 소망을 '버킷 리스트'로 정리했다.



1. 동료 코미디언(Bob Monkhouse, 1928-2003)의 삶에 대한 책 펴내기
2. 신형 벤츠 한 대 구입하기
3. 판토마임에 출연하기
4. 아일랜드에 있는 유명한 골프장 K클럽에서 라운딩 하기
5. 아내와 함께 호주여행 떠나기
6. 손자를 영국의 명문축구장 빌라파크에 데려가기
7. 영생하기

그는 책을 마무리하고, 벤츠자동차를 사고, 판토마임 오디션에 참가하는 등 앞선 세 가지를 실천했다. 뒤의 세 가지 계획을 이행하려던 중, 간경변이 오진이었음을 뒤늦게 통보받았다.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느라 그동안 모은 재산을 거의 탕진했지만 그는 가치 있는 투자였으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아내와의 호주 여행 등 '버킷 리스트'에 남은 일들을 계속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웃지 못 할 사연은 영국의 유명 코미디언 '데이브 이스마이(Dave Ismay, 65)'의 실제 이야기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많은 재산을 탕진했지만 '가치 있는 투자'였다고 말한 그는 '버킷 리스트'의 실행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지와 가족의 소중함, 잊고 지냈던 열망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BUCKET LIST

BUCKET LIST

지금, 당신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러운가?

'버킷 리스트(Bucket list)'는 생애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한 목록이다. 영어의 관용적 표현인 "kick the bucket"에서 따왔다. 구어체로 '죽는다'는 의미다. 즉,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목표를 구체화한 목록이 '버킷 리스트'다.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실천 목록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버킷 리스트'를 거창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데이브 이스마이'의 경우처럼 아내나 손자와 시간 보내기 같은,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내게는 소중한 일들이 있다. 각자 이루고 싶은 소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버킷리스트의 한 항목이 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여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버킷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친 사람이라면 햇살 좋은 봄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버킷리스트'는 각자가 처한 상황, 간직하고 있는 꿈,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다양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욕망인가, 소망인가?

2008년 개봉한 영화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할리우드 최고의 연기파 배우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둔 노년의 두 남자를 연기했다.

자동차 정비사로 평생을 살아온 '카터 체임버스(모건 프리먼 분)'와 사업가인 '에드워드 콜(잭 니콜슨 분)'은 죽음을 앞두고 '버킷 리스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병원을 뛰쳐나간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들의 삶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것은 바로 '욕망'이 아닌 '소망'을 이루겠다는 결심이다. 욕망과 소망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기적의 양피지 캅베드'라는 책에 따르면, 욕망이란 인간의 헛된 바람이고 소망은 참된 바람이라고 정의한다. 즉, 평소 절실하게 원하고 꼭 이루고 싶던 것일지라도 곧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절실함이 사라지는 것들은 부질없는 욕망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애뜻하고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이다. 카터와 에드워드 또한 그랬다. 젊은 시절, 그들이 죽도록 이루고 싶었던 꿈은 포브스 표지에 나오



는 돈 많은 재벌이나 최초의 흑인 대통령 같은 거창하고 원대한 것들이다. 그러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들이 이루고 싶은 꿈은 젊은 애들처럼 문신하고 폼 재보기, 카레이싱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기, 눈물 날 때까지 숨넘어가게 웃어 보기, 미소가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같은 사소하고 부박한 것들이다. 이 사소하고 부박한 것들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록을 지워나가기도 하고, 더해 가기도 하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실한 우정, 가족애에 대한 잔잔한 감동을 깨달아 간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 지게 마련이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몸소 체험한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 사물들의 존재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고,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영원과 소망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기도 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산다면,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으로 풍요로울 것이다.

오늘,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1개월 밖에 남지 않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사람의 완성된 삶의 모습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일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삶의 진정한 목적은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욕망과 소망의 혼돈 속에서 생의 대부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도 이내 공허함과 아쉬움이 찾아온다면 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한시적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행복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버킷리스트'를 써내려가는 의미다. 삶에 지치고, 인생의 지침을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내 주변, 가족, 친구,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궁금하다!

어찌 보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한부가 아닐까? 몇 년 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명제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뜻하는 '버킷리스트'는 언제 작성해도 이른 일은 아닐 것이다. 서부지방본부의 소문난 '토크왕'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만의 버킷리스트를 써내려갔다.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 개성만점의 버킷리스트를 지금부터 전격 공개한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창시절을 온통 공부에 쏟아 붓고, 이후에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목을 맵니다. 직장에 들어와도 숨막히는 경쟁이 이어지는 등 '해야 할 것'의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작 '하고 싶은 것'들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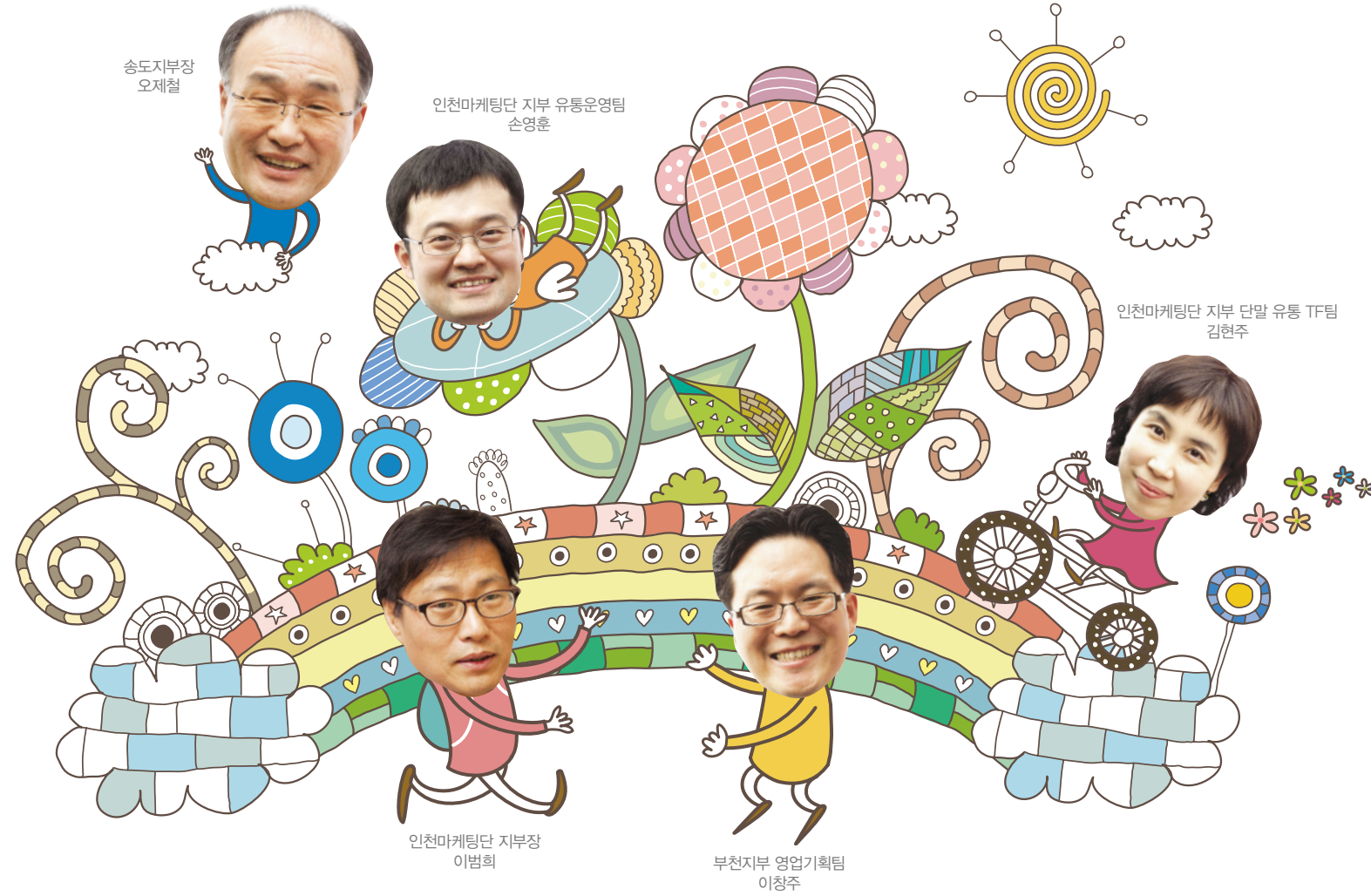
여러분들이 요즘 꿈꾸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이범희 나이가 40대 후반에 들어서니 퇴직하고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수지를 하나 경영하자 하는 것이예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주말마다 낚시를 다닐 정도로 민물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저수지에 방갈로와 야외식당도 마련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가까운 이들과 어울리며 노년을 즐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저수지를 운영하면 제 취미도 살리고 친구, 직장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창주 저는 어릴 적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인지 그때는 '보통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죠. 따끈한 콩나물국에 밥 말아서 김치와 먹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은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되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KT에 입사했더니 어머니가 '전화국'에 들어갔다며 공무원이 됐다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웃음)

30대를 살아가는 요즘 제 인생의 목표는 2가지예요. 100억 만들기라 케네디 집안처럼 명문가가 되는 것이죠. 잘만 하면 죽기 전까지 100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예요. 이번 가을 즈음엔 주식을 팔아서 가족과 함께 일본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집안을 명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경제에 대한 관심, 사회적 리더로서의 마음가짐 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2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인데 반장, 부반장, 회장에 다 떨어지고도 부회장 후보로 나설 정도예요. 아이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실감하곤 해요.

이범희 말을 듣다보니 전 돈을 모으기는커녕 먹고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한숨) 빗 때문에 이자 갚기에 바쁘니까요. 저수지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집 팔고,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을는지... 그런데 오제철 지부장님은 꿈이 뭐예요?

오제철 창주 씨처럼 맞벌이를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겠지만, 50대 중반인 저는 아직도 가장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부인이 밖에서 일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군요. 젊었을 때는 파일럿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지금은 퇴직하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요. 수도권에서 조금 멀더라도 공기 좋은 곳에 아담한 집 한 채 짓고 텃밭 일구며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 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아들, 딸이 아직 대학생이어서 교육비가 만만찮게 들어가거든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도 지금은 여력이 없어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요즘 제 꿈은 아주 소박해요. 퇴직을 하고 나서 자식들에

게 손 안 벌리고 노후를 보내는 것이죠. 아, 축구 얘기가 빠졌네요. 축구를 좋아해서 나이가 70이 넘어도 젊은이들과 운동장에서 뛰고 싶어요!

김현주 제 어릴 적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93년 KT에 입사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해봤어요. 본부에서 홍보일도 해봤고, IT 서포터즈로도 활동했었죠. 서포터즈였을 때 인터넷 중독인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데서 제가 즐거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카운슬러로 활약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사회의 기반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한 느낌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거지요.

이범희 김현주 씨가 가입자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지금 바로 카운슬러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들어주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신입사원 손영훈 씨는 꿈이 뭐예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손영훈 IT 기술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애플의 스티브잡스처럼 세계적인 IT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싶어요. 꿈이 굉장히 거창하지요?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은 어릴 적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읽고 트로이 전쟁이 역사적 사실임을 굳게 믿고 고고학자가 되어 그것을 발굴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은 수십 년이 지나 현실이 되었죠. 이처럼 꿈을 언제 이루는가보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일생을 함께할 꿈같은 여인은 되도록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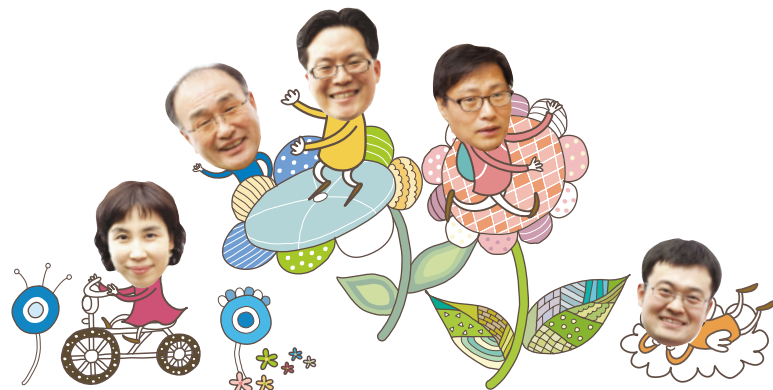
책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보셨나요?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노년 두 명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내용인데요. 우리도 한 번 상상해볼까요? 자신의 삶이 한 달 혹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될는지요?

이범희 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상상하기 힘드네요. 하지만 굳이 생각해본다면 20대에 느꼈던 이성 간의 애절한 감정들을 다시 한 번 맛보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이창주 저도 그래요.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 제 옆의 배우자가 그저 친구가 되어버려요. 어떤 때는 연애시절의 불같은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은 욕망이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고 싶어요. 혁신 학교에 갔을 때 유서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쓰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이들과 여행도 가는 등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오제철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하지만 막상 닥치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죠? 만일 제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내 자신에게만 투자하지 못했던 시간을 오로지 저를 위해 쓰고 싶네요. 조용히 제 삶을 반추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기 싫기도 하고요.

이범희 듣고 보니 오 지부장님 말씀이 맞네요. 죽는다는데 무엇을 한들 즐거울까요?



김현주 맞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정말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 죽는다는 사실이 왜 슬플까 하고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이들에게 잊혀 진다는 것,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아무튼 전 6개월 정도를 생각해봤어요. 가족들과 크루즈여행을 갈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15살, 10살, 25살, 30살에 느꼈던 것을 모두 전해주고 싶어요. 무엇이 힘들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이죠.

손영훈 전 IT 관련 신제품을 모두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버터를 외제차도 몰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쓰고 싶어요. 소설 같은 것을 꼭 출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제철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훈 씨처럼 아들 같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니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느낌이예요. '나도 그때는 저랬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실이란 것이 한 개인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후배들에게 일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기 자신, 취미, 친구, 가정 등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회사 밖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은 참으로 넓어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창주 저도 신입사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나와 회사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거든요. <서른 살엔 미처 몰랐던 것들>이란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버킷리스트는 어쩌면 죽기 직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작성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의 여행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목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우고 또 다른 것을 더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어머니들의 생존권 투쟁에 개인적 의사를 표현한 것은, 그저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다.

배우 김 여 진

“그걸 왜 저에게 묻죠? 나는 배우일 뿐이지, 운동가가 아닙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지지 운동을 해왔던 배우 김여진에게 노동운동과 관련한 다음 행보를 묻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다. 김여진은 지난 1월부터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의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하지만 그녀는 네티즌들의 열화와 같은 상찬이 과도하다며 손사레를 쳤다. 소위 ‘있어보이려’고 나선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최저임금 75만원과 점심값 300원을 받고 일하는 어머니들의 상황이, 연예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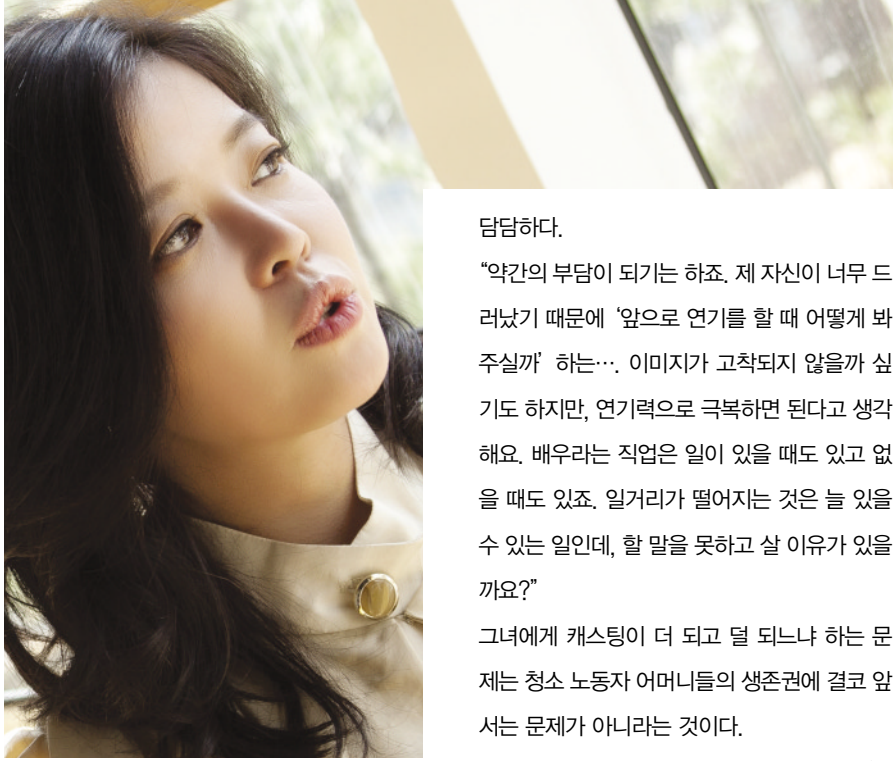
김 여 진



지난해 연말, 홍익대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 170명을 용역계약해지로 집단해고하면서 홍익대 청소노조 사태를 불러왔다. 올해 1월 3일부터 농성 투쟁을 해온 해고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노동에 월 75만원의 월급과 하루 식대 300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지난 2월 20일 고용승계보장과 임금인상 등의 성과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투쟁 기간에는 특히 필요한 먹을거리와 후원금, 신문 광고 등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트위터러인들의 활동이 화제가 됐는데, 김여진은 바로 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연대 투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홍익대 사태에 직접적으로 몸담게 된 동기로 트위터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말한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한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면면들을 보게 됐죠. 누구나 자신의 걸리지 않는 생각을 토로하는 것이 뉴스를 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홍익대 사태에 주목하게 된 것도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의 1인 시위 사건을 트위터에서 본 것이 가장 큰 동기였어요.”

그동안 4대강 사업이나 인도적 대북 지원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 온 그녀지만,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물론 대학 시절에는 운동권에 몸담았지만, 졸업 후에는 투표도 거를 만큼 노동 운동은 고사하고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

그러던 중 불거진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를 보면서 지금껏 가



담담하다. “약간의 부담이 되기는 하죠. 제 자신이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를 할 때 어떻게 봐 주실까’ 하는… 이미지가 고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연기력으로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배우라는 직업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일거리가 떨어지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할 말을 못하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녀에게 캐스팅이 더 되고 덜 되느냐 하는 문제는 청소 노동자 어머니들의 생존권에 걸고 앉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여진이 트위터를 통해 만든 온라인 모임 ‘날나리 외부세력’은 투쟁 기간 내내 그녀와 함께였다. 그들은 밑받침을 마련하는 등 농성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도와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그녀 자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함께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숨 속에 내재했던 무언가가 울컥 하는 느낌이었다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편들어 주지 않고 어머니들만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 그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다.

배우 김여진은 1998년 <처녀들의 저녁식사>로 영화에 데뷔해 청룡영화제 신인상, 1999년 <박하사탕>으로 대중상 조연상, 2008년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2011년 연극 <엄마를 부탁해>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연극에서 좋은 연기를 펼쳤다. 올해 2월 개봉한 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다룬 실화극 <아이들…>에서는 사라진 아이의 한 명인 종호 엄마 역을 맡아 절제된 슬픔과 애끓는 부모의 심정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김여진은 흥대 롯데시마에서 청소 노동자 어머니들과 트위터 팔로워들을 위해 <아이들…>의 특별 상영회를 자진해서 열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연대 투쟁

관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관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어렵다. 그것이 배우라는 직업의 공인이라면 그에 미칠 파장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터.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에 대해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많이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진하거나 뉴스를 보면서 한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부터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그저 내키는 대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모아 ‘하자’고 했을 때 모두가 선뜻 나서서 신나고 재미있게 활동했죠.”

‘날라리 외부세력’이라는 이름은 흥익대 총학생회장이 본관 농성장을 찾은 뒤 ‘외부세력은 나가달라’고 말한 게 계기가 돼 붙여진 이름이다. 그녀는 지난 1월 7일 흥대 농성장을 찾았을 때, 때마침 농성장을 찾은 총학생회장과 노동자들 간의 대화를 옆에서 듣게 됐고, 총학생회장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글을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려 화제가 됐다.

흥대 총학생회장은 당시 농성장을 찾아 “어머니들 도와드리고 싶다. 진심이다. 하지만 난 ‘비운



동권’이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다. 나를 뽑아준 학생들은, 어머님들을 돕는 건 돕는 거지만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거 싫다 한다. 학교가 ‘외부 사람’들로 채워지고 투쟁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 싫다 한다. 그게 사실이다. 그런 입장을 가진 학생들이 날 뽑아서 내가 회장이 된 거다. 돕고 싶다. 그렇지만 먼저 ‘외부 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나부터 반성한다.’고 했다. 그래서 “무엇이 널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스펙에, 취업에, 이기적이길 강요받고 있는 너와, 너를 지지하는 학생들만의 잘못일까?”라고 말하면서도, “너의 책임이 없다 못하겠다. 학습권과 생존권, 너희의 권리와 보편적 정의 중에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며 자신의 안일과 경쟁만을 앞세우는 세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당시 함께 전했다.

김여진과 날나리 외부세력, 일낸다

청소 노동자 투쟁을 응원하는 그녀의 방법은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다. 필요한 물품의 지원이 필요하면 트위터에 즉각 알려 사람들의 힘을 모은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흥대 농성장에 발전기 대여와 전기담요가 필요합니다. 김치는 언제나 필요하고 노래도 불러주세요. 이 추운 날, 춥지 않게, 외롭지 않게, 부탁해!!!!요오오!!!(3:35 PM Jan 14th)” 언론에 광고도 냈다. 지난 1월 21일자 일간지에는 ‘흥익대 총장님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라는 제목으로 광고가 실렸다. 모두 날나리 외부세력들의 성금과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인 공감과 참여. 그래서 김여진은 투쟁

내내 ‘재미있었다’고 말한다. 그녀의 ‘재미’라는 말 속에는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변화하고 진보해야 하는 노동운동의 방향 또한 짐작케 한다. 방대한 생각들도 시대에 맞게 변하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모두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커진다. 그래서, 그녀는 “노동 운동 또한 일관된 하나의 모습이 아닌 각자 하고 싶은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라 말하는 것이다.

점거 농성 49일째. 흥익대는 결국 집단해고했던 노동자 전원을 고용 승계기로 했고 학교 앞 점거 농성은 끝이 났다. 그녀는 거창한 노동운동의 담론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출발이었다. 김여진의 좌우명은 ‘무조건 행복’이다. 그녀는 매 순간의 선택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가를 두고 결정한다고 했다. 그래서 ‘만일 흥익대 사건을 내가 모른 척 지나쳤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김여진은 영화 <아이들…>이 말하는 바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듣고,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요. 대다수 사람들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잊어버려요. 확인도 안하고 사라져 버리죠. 아이들의 고통이건, 연예인 문제건. 그게 우리들이죠.”

타인의 아픔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함께하도록 일깨우는 영화의 힘은 배우 김여진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삶에 대한 진정성. 영화 <아이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순항 중인 이유는 그것이 아닐까.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배우 ‘김여진’의 이름을 확연하게 각인시키는 이유, 아날까.

진정성 느껴지는 연설이 오바마의 강점 ‘검은 케네디’ 돌풍을 일으킨 오바마식 스피치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좋은 일이다. 단지 종교적인 것 뿐 아니라 정치, 사회, 관습, 인간 등 어떤 가치들에 믿음을 부여할 때, 인간은 고등한 인격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다양성을 거부하고 믿음을 강요하는 순간, 균열과 반목이 발생한다. 자신의 믿음을 기계적으로 주입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의 말투,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목청껏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설파해도 정작 듣는 이들에게 그 어떤 진정성도, 울림도 주지 못한다.

오바마를 만든 감동의 스피치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주기보다는 당신을 늘 재미있게 살도록 해 주겠소"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아내에게 위와 같은 말로 청혼했다고 한다. 9.11의 상흔을 뚜렷이 각인하고 있는 미국에서, 후세인(Hussein)이라는 이슬람식 이름을 가진 무슬림 유학생의 아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된 저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이 주요한 기제로 작용했다. 오바마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감동적인 기조연설을 한 후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계의 핵으로 화려하게 부상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까지 표현한다. 오바마의 화술과 제스처를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상대 뿐 아니라 후배와 동료, 그리고 상사의 마음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낸 오바마식 연설의 힘은 무엇일까.

첫째.
쉽고 간결하게 말하면서 적절한 예피소드를 들어 듣는 이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점이다

"제 아버지는 양떼를 몰고 다니며 양철 지붕으로 된 허름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영국인 가정의 조리사이자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뜻을 심어 주었고, 그 아들인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며 불굴의 인내심을 발휘, 결국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전혀 부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제가 이 땅에서 최고의 학교에 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담대한 꿈이 소중한 내 딸들에게도 이어져



야 하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채로운 성장배경과 경험을 토대로 화두에 접근해가는 방식은 청중을 쉽게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인다. 부드럽게 대중의 감성을 파고든 뒤 정치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식이다. 즉, 일련의 일화들을 얘기해주면서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둘째.

겸손한 화술은 청중으로 하여금 오바마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판과 쓴소리도 편견 없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그는 절대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 길을 걸어 온 존 매케인을, 그의 애국심과 신념을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듯이, 매케인 역시 이 나라를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는 애국자와 반대를 하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조지 부시 또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믿는게 다른 사람일 뿐이지요."

오바마의 화술은 이렇게 자신의 지지자 뿐 아니라 반대자들까지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실제로 오랫동안 공화당 지지자였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를 찍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오바마의 화법은 그동안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관용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우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사회 전반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그' 혹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일깨우고 독려했다.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에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비록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해도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어딘가에 살고 있는 노인이 약값을 내지 못해 약값과 집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그 분이 내 조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어느 아랍계 미국인 가족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한 채로 올바른 절차 없이 체포된다면, 그 사건은 내 인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 내가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이야말로 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후퇴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야 할 많은 아이들, 그리고 보살펴야 할 많은 가정, 치유해야 할 많은 삶 때문에 후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선거에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그리고 예외 없이 지켜주는 그 약속을요."



Barack
Hussein
Obama



한 발 더 뛰는 농구, KT소닉붐 우승!



“함께 뛰고, 한 발 더 뛰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KT소닉붐 우승!” KT소닉붐의 우승을 자축하는 광고다. 카피처럼 스타플레이어 없고, 평균 신장 최하위인 KT소닉붐의 우승은 그야말로 ‘함께 뛰어 이룬 팀워크의 승리’였다.



끝에서 1위로, 불가능은 없다

이렇다 할 스타도 없고 벤치 멤버도 약하다. 그렇다고 눈에 띄는 장신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선수들이 뭉쳐 대형 사고를 쳤다. 2010~2011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우승한 KT소닉붐은 스타 선수 부재, 약한 벤치 멤버, 낮은 높이 등 3대 약점을 한 발 더 뛰는 농구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소닉붐은 지난 3월 1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원주 동부를 87-67로 제압하고 승리하며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어 3월 20일 부산에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울산 모비스를 80-65로 꺾고 정규리그 우승은 물론 시즌 41번째 승리로 ‘한 시즌 최다 승리’ 기록을 세웠다. 부산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구단의 14년 만의 첫 우승이라는 점에서 홈 팬들의 기쁨은 절정에 달했다. 이날 KT소닉붐은 정규리그 한 경기 역대 최다 관중 기록도 동시에 갈아치웠다. KT의 정규리그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 사직체육관을 방문한 관중은 무려 12,693명. 이는 지난 97-98 시즌 동양과 현대의 서울 중립경기 12,556명의 기록을 13시즌 만에 넘어선 대기록이다. KT소닉붐은 2008-2009 시즌에서 10위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한지 2년 만에 정상에 서는 기염을 토했다. 2009년 꼴찌였던 팀이 불과 2년 만에 우승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전창진 감독 영입 후 농구단 내부 소통을 강화해 단숨에 최강 전력으로 거듭난 KT소닉붐은 2003년 코리아텐더를 인수한 후 구단 사상 첫 프로농구 정상에 올랐다. 특히, 시즌 초반 주축 선수였던 김도수가 부상으로 아웃되고 시즌 막판에는 용병 제스퍼 존슨마저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등 단 한 번도 베스트5를 출전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일궈낸 것이기에 더욱 값진 우승이었다.

평범한 선수들이 보여준 팀워크의 승리

KT는 부산에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창단 첫 우승을 자축하고 통합우승을 기원하는 ‘챔피언스 데이’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KT소닉붐 구단주인 이석채 회장을 비롯해 김구현 위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전욱 KBL 총재 등이 참석해 정규리그 우승을 축하했다. 이날 김구현 위원장은 선수들에게 시즌 동안 조합원들을 결집하게 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전했고, 선수들은 김구현 위원장과 이석채 회장을 목마 태우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울러 전창진 감독은 “시즌 내내 어려운 팀을 위해 불평 없이 한 발 더 뛰는 투혼으로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우승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오늘의 감동을 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가 반드시 통합우승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KT소닉붐의 우승은 전창진 감독의 리더십 아래 뚜렷한 스타플레이어 없이 평범한 선수들이 서로 간의 신뢰와 조직력,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일궈낸 우승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공격력이 특출난 선수가 없었기에 팀 전원이 항상 움직이며 공격하는 ‘무빙 오피스’를 구사한 것이 한 예다. 선수 개개인은 평범했지만, 모두가 승리를 위해 상대보다 한 걸음 더 뛰었고, 서로를 믿고 팀워크로 승부했다. 여기에 KT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응원해준 것도 큰 힘이 됐다.

KT소닉붐은 이제 창단 최초의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그 어느 팀도 갖지 못한 KT소닉붐만의 한 발 더 뛰는 농구로 다시 한 번 끈끈한 조직력과 우승에 대한 남다른 근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노동자 아닌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투쟁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통해 살펴본 저임금 노동



故 최고은 작가

한 여성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굶어죽었다. 그것도 무려 수도 서울이 '디자인' 서울이고, 한 해 문화산업 총매출액이 58조 9500억원(2008년, GDP 대비 5.74%)에 달하며, 문화산업을 당당히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규정한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5차례나 계약을 성사시킨 현직 시나리오 작가가, 돈이 없어 질병과 굶주림에 힘들어하다 죽었다.



올해 초 집단으로 해고돼 농성투쟁을 벌였던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2월 21일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학본관 점거농성 49일 만의 이이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전원 고용승계 △1일 8시간, 주 5일제 근무 △시급 4천450원 △식대 월 5만원 △명절 상여금 5만원 등에 합의했다. 기존 노동조건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홍익대의 투쟁은 이후 고려대병원·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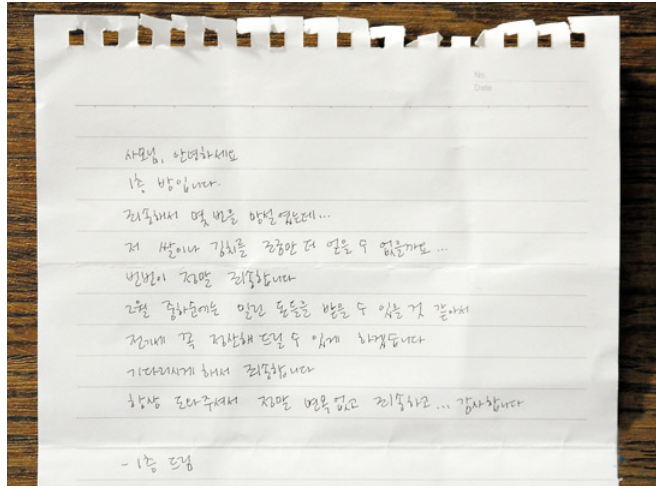


노동자 아닌 노동자

인디가수 이진원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잇단 죽음은 영화계와 대중문화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의 영화 1편당 평균임금은 852만원이다. 1인당 제작 참여 편수는 1.5편으로, 평균연봉은 1,000만원을 겨우 넘는다.

영화 스태프의 90% 이상은 비정규직이다. 작품당 고용기간은 3~4개월 단기계약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4대 보험에 가입된 스태프의 비율은 10%를 밑돈다. 영화진흥위가 지난해 8~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태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시나리오·연출부문으로 19.4%였다. 이어 촬영·조명 분야(14.8%)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현장편집·특수효과·후반작업·녹음·분장·헤어·스틸·메이킹 인력이었다.

올해 1월 29일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한 월세방에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당시 32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06년 제4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단편의 얼굴상'을 수상했던 영화감독이자 작가의 쓸쓸한 죽음이었다. 경찰은 지병에다 수일째 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가 마지막 쪽지에 남긴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라는 표현은 영화계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故 최고은 작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마침 국회에 영화 스태프를 비롯해 직업 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과 복지 제도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발의돼 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예술인 복지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간접고용·한계기업 대책 없나

젊은 뮤지션과 작가의 죽음이 예술인들의 열악한 실태를 드러냈다면, 새해 벽두에 하고 날벼락을 맞은 흥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장기가능성은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최고임금이 되는 기막힌 현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정 최저임금(시급 4,320원)으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2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5,410원(인상률 25.2%)을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 봐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 4만4,28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3만690원밖에 안 된다. 지난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26만 4,460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의 한계기업을 계속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 것인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08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38만여명)로 상점판매원·경리사무원·총무사무원 다음으로 많았다. 426개 직업 중 네 번째였다. 그만큼 청소업무가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청소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월 79만6,000원으로 426개 직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8년 최저임



최고는 작가가 죽기 이틀 전,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흥대 대부분의 클럽에서 100여개 팀의 뮤지션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11월6일 세상을 등진 원맨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당시 37세)씨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고인은 뇌출혈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가난과 맞서 싸웠던 그의 음악활동이 알려지면서 대중문화계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는 평소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연봉 1,000만원만 되면 음악을 계속하겠다.”



금을 적용하면 청소노동자의 82.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와 단기계약을 체결한다. 공공노조의 조사 결과 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미만인 청소노동자들이 전체의 83.6%나 됐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누구나 4대 보험·최저임금 혜택 받아야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적용은 꿈도 못 꾸는 노동자들도 있다. 근기법상 '가사사용인' 범주에 속하는 가사도우미 노동자들이다. 근기법(제11조)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간병·가사와 같은 ‘돌봄노동’이 사회서비스로 전환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정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 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 간혹 가

입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임금이 워낙 적어 보험료 납부를 꺼린다. 임금을 대폭 올리거나, 사회보험료를 정부나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 한 4대 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고 있다. 일자리 개수에 매몰된 노동정책이 빛은 답답한 필연이다. 갖가지 미사여구로 치장된 일자리 통계는 노동시장 현실을 왜곡하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정부가 설정해야 할 노동정책의 방향은 간단하다. 고용형태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4대 보험의 혜택을 주고,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 고 최고은 작가와 이진원씨 같은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야 하는지, 가사도우미 노동자들이 근기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 목에 달린 방울

복수노조에 관한 세 가지 흐름과 세 가지 변화



고양이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대여섯 가지 제안이 오갔다. 명망 있고 경륜 높은 쥐 한 마리가 말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묶으면 됩니다. 그러면 방울이 팔랑팔랑 소리를 내서 고양이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쥐들은 열렬한 박수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때 나이 든 쥐 한 마리가 일어나 말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지 물어도 될까요?”

(〈이솝우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중에서)



이미 울리기 시작한 방울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공연히 의논하거나, 행동보다 말이 쉽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다. 탁상공론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재계는 그렇게 힘들다는 ‘방울 달기’에 이미 성공했다. 지난해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계의 목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라는 방울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방울을 달았다. 중소기업·영세·비정규직노조는 애초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노동계, 교집어 말하면 대공장 정규직노조가 타임오프 고시한도를 넘어서거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방울이 울린다. 타임오프 방울은 지난해 7월부터 부지런히 울리고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울은 올해 7월 이후가 되면 울릴 것이다. 그때 정부는 사법처리 카드를, 사용자는 단체교섭 거부 카드를 꺼내 들면 그만이다. 사용자들은 강성노조 사업장에 회사가 지원하는 온건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 없이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다. 복수노조 허용이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사용자의 교섭력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노동계가 할 일은 분명하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방울을 하루빨리 떼 내는 것이다.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세 가지 흐름

복수노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허용된다.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함께 시행이 유예된 지 13년 만이다. 헌법상 단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노조법에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이 명시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해 전임자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개가를 올렸고,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노동계가 노동3권을 훼손했다며 위헌논란을 제기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양대 노총과 야당은 조



만간 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법안을 손볼 시간도 부족하다.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제외하면 대략 세 가지 흐름이 관측된다. 우선 7월1일 이전에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을 묶어 유예하는 방안이다. 노동계에서 기득권 유지를 바라는 세력을 중심으로 유예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거대 재벌 삼성의 반발도 변수다. 기득권 세력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한국교통신수노동조합총연합회(KTF) 소속 산별연맹들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놓았다. 주요 내용은 일정한 규모(1만명 이상)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2년 이내에 과반수가 안 됐을 경우 자동해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른

바 '슬라이딩 시스템'(sliding system)이다. 조합원 이종가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법률적 결함이 많아 입법 발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노조법 재개정을 뒤로 미루고, 타임오프 제도를 개선하자는 현실적인 흐름도 존재한다. 전면재개정이나 유예, 일부개정 모두 노조법을 손대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노조법 재개정을 이끌어 내는 전제조건은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조복원도 힘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삼성조차 지난해부터 모의 단체교섭을 잇따라 개최하며 복수노조 대응에 골몰하는 실정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각종 현안을 제쳐 두고 노조법 개정에 집중할 뜻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에도 불구하고 13년간 유예된 법안을 시행한다는 데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다. 굳이 헌법상 단결권에 속하는 '복수노조 허용'을 건드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방울 단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수 없다

세 가지 흐름 중 대세는 세 번째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노조법 재개정 논의는 내년 총선을 전후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복수노조를 시행하고, 타임오프와 상급단체 전임자 문제는 하반기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통해 부분 손질(전국단위 사업장 등)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회사노조(company union)의 등장이다. 회사의 지원을 받고, 사용자의 의사에 영합하면서 지배·운영되는 노조를 말한다. 어용노조(御用勞組)로 이해하면 된다.

둘째,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 쪽으로 쏠릴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개별교섭·교섭단위 분리·경과조치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법상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기존 과반수 노조와 다른 내용(이면합의 포함)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회사의 지원하에 설립된 노조들이 이를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3노총 설립 등 노동계 상급단체의 분화다. 일부 공공부문노조들이 참여하고 있는 새희망노동연대는 이미 6월까지 '국민노총'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상급단체 분화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노조 간, 상급단체 간 서비스 경쟁은 활발해질 것이다.

회사노조가 잇따라 등장하고,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선 상황에서 노동계가 조합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노동계가 '타임오프'라는 방울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방울을 목에 달고 있는 한 서비스 경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 침체와 노동유연화 가속화는 그 덩어리다. 방울을 단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복수노조 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촉매제쯤으로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에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이패드 혁명! 힙스러 갈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의 모습을 바꾼 아이패드 혁명!

'아이패드 혁명' 이 시작됐다. 아이패드를 필두로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태블릿PC, 모든 콘텐츠가 담기는 모바일 시대의 '허브(Hub) 미디어'. 그것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비즈니스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신문과 잡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자책은 종이책을 대체할 것인가? TV, PC, 노트북, 게임기의 미래는 무엇인가? 스마트TV의 등장에 따라 방송 서비스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까? 아이패드가 몰고 올 교육서비스 혁명은 어떤 모습일까? 기업들은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어떤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아이패드가 만들어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그에 따른 비즈니스 혁명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아이패드, 태블릿PC 시대를 열다

9.7인치의 날렵한 태블릿 PC. 미국의 아이패드 열풍의 요인은 무엇보다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터치형 스크린을 채택해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키보드와 마우스로 PC나 노트북을 사용하기가 힘들었던 중장년층과 유아들에게까지, 아이패드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첨단 기기가 됐다. 모든 연령층이 TV를 켜듯이 아이패드를 켜고 손가락으로 만지며 즐기기 시작했다. 아이패드 열풍의 또 다른 요인은 정착된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도 있다. 모건스탠리의 분석대로 2010년은 '모바일 원년'이 되었다. 와이파이(Wi-Fi)나 3G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시대. 모바일 시대의 본격화라는 시대적 여건과 결합되면서 아이패드의 효용성은 극대화될 수 있었다.

열풍의 근거는 결국 아이패드가 컴퓨터 같은 업무용이나 콘텐츠 제작용이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로 자리 잡았다는 특성에서 나온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은 소파에 기대어 아이패드로 인터넷을 서핑하며 신문과 잡지를 읽고, 뉴스나 드라마, 영화를 시청한다. 쇼핑을 하거나 책을 구입해 읽고 음악과 동영상도 마음껏 즐긴다. 라디오를 듣거나 게임을 하기도 하며 지도상의 위치를 찾고 사진액자로 쓰기도 한다. 피아노 같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화가처럼 그림도 그린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아이패드는 모든 콘텐츠들이 담기는 '허브(Hub) 미디어'가 되고 있다.



아이패드 비즈니스 혁명과 애플의 생태계

애플의 성공 이후 다른 기업들도 아이패드와 비슷한 터치방식의 태블릿PC 제품들을 줄줄이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거대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통신, 출판, 신문, 방송, 광고, 교육, 게임, 음악, 패션... 대부분의 업계가 생존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즈, 와이어드, ABC 등 유수의 신문, 잡지, 방송사들이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맥밀란과 펄컨 등 대형 출판사들이 이미 뛰어 들었고, 출판과 교육산업이 융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광고업계도 본격적인 모바일 융합광고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이패드가 위력적인 것은 애플이 수년간 구축해놓은 '비즈니스 생태계' 때문이다. 매혹적인 단말기와 독자적인 유통채널,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애플은 아이튠스와 앱스토어, 아이북스토어를 기반

으로 아이맥, 맥북,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했고, 스마트TV인 아이TV를 준비하고 있다. 애플은 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통해 음악, 동영상, 통신, 책, 소프트웨어 등 모든 콘텐츠를 장악해가고 있다.

아이패드 열풍에 대한 산업별 대응전략

신문, 잡지, 방송, 출판, 교육, 통신, 게임 등 비즈니스 전반에서 아이패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이패드가 이들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날날이 파헤쳐 보자.

◎ **신문과 잡지** 신문과 잡지는 아이패드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찾거나,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다.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실패를 경험한 신문사와 잡지사들은 태블릿PC에서만큼은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유료화의 길을 찾을 것인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 것인가. 아이패드를 포함한 태블릿PC가 신문, 잡지 최후의 결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방송** 아이패드와 스마트TV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스마트TV는 방송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까지는 콘텐츠 1등 회사, 서비스 1등 회사, TV 제조 1등 회사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하지만 TV산업의 스마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사업 구조상의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 간의 경쟁으로 TV 방송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iPad

◎ **출판** 아마존의 등장으로 유통 혁명을 맞이했던 출판업계는 이제 킨들에 이은 아이패드의 등장으로 전자책 혁명이라는 근본적인 변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과거 아마존이 일으킨 유통혁신이 출판사가 출간한 책들에서 롱테일 비즈니스 시대를 열었다면, 아이패드가 일으킬 앞으로의 혁신은 콘텐츠 저작에서 롱테일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기존의 출판사들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IT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기회 및 협업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iPad 2

아이패드 발 쓰나미에 휩쓸려갈 것인가, 아이패드 발 혁명을 주도할 것인가. 혁명적인 변화는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경쟁 구조,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 **교육** 태블릿PC가 교육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하면서 전자책, 소셜 웹서비스와 결합해 교육서비스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아이패드는 콘텐츠 고도화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도구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셜 웹서비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소셜 교육의 가능성을 열었다.

◎ **게임** 이미 게임업계는 휴대폰용 게임회사들이 위기를 맞는 등 대변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앱스토어라는 훌륭한 오픈 마켓을 가진 아이패드는 PC 게임, 콘솔 게임과 비교해 엄청난 소프트웨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게임 단말기로서 아이패드가 가진 또 다른 강점은 비(非)게이머층을 포함하는 높은 보급률이다. 향후 아이패드가 게임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산업 전반** 아이패드는 특정 시장만을 노린 산업사회 비즈니스가 아닌 유무형 재화의 복합적인 교집합을 만들어주는 복합 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아이패드 자체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신제품이지만 그 뒤에 감춰진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용도와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모바일 세상**
 몇 해 전 아이팟이 MP3 플레이어 산업과 음악 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휴대폰과 통신 산업에서는 아이폰이 그랬다. 이제 아이패드가 신문, 잡지, 방송, 통신, 출판, 게임, IT업계 등 비즈니스 전반을 겨누고 있다. 아이패드 발 쓰나미에 휩쓸려갈 것인가, 아이패드 발 혁명을 주도할 것인가. 혁명적인 변화는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경쟁 구조,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이패드'와 '태블릿PC'는 이제 시대적 아이콘이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모바일 세상을 상징하는 아이콘. 개인에게는 풍요롭고 편리하지만, 기업에게는 생존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현장의 중심을 향해 뛰고 또 뛴다!

서부지방본부



지난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온 국민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고,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전 세계가 술렁이기도 했다. 이 굵직한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서부지방본부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현장의 중심에서 뛰고 또 뛰는 서부지방본부의 땀방울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그들을 인천에서 만났다.

현장, 그 한가운데서 뛰는 사람들

서부지방본부가 자리한 인천 연수구 옥련동으로 찾아가는 길. 차창을 넘어 오는 바람에 소금기가 조금씩 묻어나고 있었다. 송도유원지와 인천대교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서부지방본부 사무실에 들어서니 문경노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재 사무국장, 김영근 조직국장, 정지곤 교육홍보국장, 김철호 쟁의국장, 민형식 복지후생국장, 유광림 조사통계국장, 양선희 여성국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모두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먼 길을 달려왔단다. 서울, 안산, 안양, 김포 등 지역도 제각각이다.

현재 46개 지부에 1,969명의 조합원으로 이뤄져 있는 서부지방본부는 여타 지방본부와 달리 조직 구성이 특이하다. 문경노 위원장은 “2009년 조직 개편으로 인해 현재 5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거점단인 인천마케팅단이 송도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인천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권역, 안양 안산 권역, 부천 부평 권역, 인천 서인천 권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성격들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장을 찾아나서는 일이 버거울 법도 하건만 문 위원장을 비롯한 상무집행위원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김영근 조직국장은 “서부지방본부의 슬로건이 ‘조합원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입니



다.”라며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달려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곤 교육홍보국장도 “천안함 침몰 사건 때도 현장으로 달려가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면서 “현장을 중심에 두는 것이 서부지방본부의 기본자세이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나라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백령도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열린 취재 경쟁을 벌였다. 서부지방본부의 문경정지곤 전 사무국장이 한달음에 백령도로 건너갔다. 문 위원장은 “당시 백령도에 상주하고 있던 KT 직원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왔고, 텐트를 쳐놓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취재 활동을 도왔죠. 커피와 빵을 나눠주고 통신 관련 편의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본래 1박 2일 머물 예정이었는데 도저히 그냥 섬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5일 동안 조합원들과 동고동락하며, 힘들었지만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지방본부

천안함 침몰 사건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포격 사건이 있었던 연평도와 추석연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대부도에도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등 서부지방본부는 언제나 조합원들과 함께이고자 했다.

사실 서부지방본부의 근무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총원율이 전국 최하위일 만큼 모두가 꺼리는 지역이란다. 김영근 조직국장은 “총원율이



1. 이광재 사무국장
2. 유광림 조사통계국장
3. 양선희 여성국장
4. 문경노 위원장
5. 김영근 조직국장
6. 김철호 쟁의국장
7. 민형식 복지후생국장
8. 정지곤 교육홍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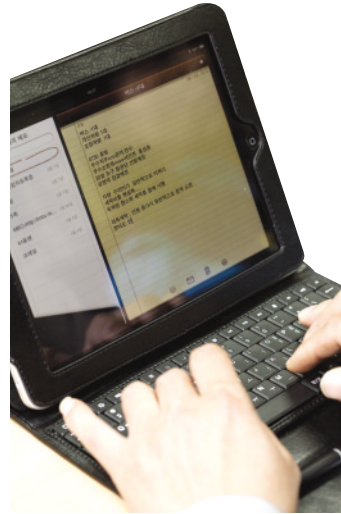
약 88%로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아 영업에도 지장이 많아요. 게다가 인천이 수도권에 끼여 있어서 생활권이 인근에 있는 직원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예요. 그렇지만 서부지방본부는 소속 조합원들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원과 함께하고자 하는 서부지방본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 조합원들의 얼굴은 밝다. 약 2,0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애경사를 꼼꼼히 챙기고, 한 달에 한 번씩 권역회의를 열어 지부장과 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유광림 조사통계국장은 “문 위원장은 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휴일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직접 챙기는 겁니다.”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헌신도 빼놓지 않는다. KT그룹 협의회가 주관한 헌 옷 나눔 행사에 11박스 분량의 옷을 지원했고,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해부터 지방본부 독자적으로 장학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본부에서 내려온 21명 외에도 1명을 따로 선정해서 월 20만 원씩 돕고 있어요.”라며 “장애인 테니스 협회에 대한 지원도 오랫동안 지속해온 봉사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전했다.

서부지방본부 사무실에서 상무집행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디선가 봄바람과 함께 바다의 냄새가 전해져왔다. 이 짝짝한 냄새가 그들이 현장에서 즐기고 있는 땀 냄새는 아니었을까?



상호간의 믿음으로 지방본부를 이끌다

키 180cm, 다부진 체격, 솔뚜껍처럼 큰 손. 서부지방본부의 문경노 위원장을 처음 봤을 때 눈에 들어온 모습이였다.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테니스와 연연이 깊었다. 1974년부터 테니스를 시작했고, KT에 입사하기 전까지 인천체육회에서 테니스 지도자 생활을 했다. 서부지방본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국 장애인 테니스 협회 부회장 등 테니스와 관련된 여러 직함을 갖고 있기도 하다.

“휠체어테니스협회 감독으로 활동했었고, 인천테니스협회 전무이사를 20년 째 맡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장애인 테니스 선수들을 위해 KT 노동조합의 도움을 얻어 컨테이너를 구입, 협회 사무실을 만들기도 했죠. ‘사랑의 봉사단’에서 기금을 얻어 국제시합도 열고, 외국 시합에 나갈 때 조합 부서장, 조합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창을 받을 만큼 다들 헌신적이었어요.”

1988년 수원시의 경기전화건설국으로 입사한 문 위원장은 1999년 일산의 서부망건설국으로 옮기면서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04년 서부지방본부 조직국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문 위원장은 지부장, 조합원들과 정기적인 만남 이외에도 수시로 불려(?)나간다. ‘조합원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덕분이다. 밤 10~11시, 때로는 새벽에 전화가 와도 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처음 위원장에 선출되고 나서는 인천은 물론이고 서울, 안양, 안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일주일에 5일은 조합원들과 함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꼭 슬로건 때문이 아니라 현장이 중심이며, 현장 속에는 조합원이 있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중심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가 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믿음’이다. 지도자와 선수 간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조합원과 중앙본부 간에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방본부 위원장의 주된 역할이라는 것이다. “믿음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것도 결국은 상호간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죠. 현장 곳곳을 뛰다니며 조합원들을 섬기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에 왔다면 놓칠 수 없다!

활어회 vs 닭강정 vs 중화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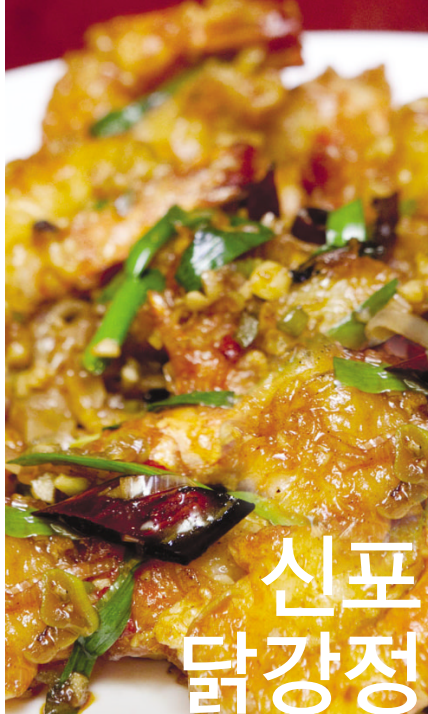
수도권 유일의 산지 어시장은 2,300평의 면적에 500여 개의 점포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곳.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우럭, 광어, 농어, 송어, 민어 등 펄떡이는 활어와 짭조름한 젓갈, 각종 건어물들이 연신 군침을 솟아나게 한다. 활어를 직접 고르면 바로 회를 떠서 인근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상차림비는 1인당 2,000원이며, 매운탕이나 지리도 10,000~15,000원이면 끓여준다. 대구상회에서 KT 직원이라고 귀띔하면 서비스가 그렇게 좋다고!



인천종합어시장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
문의 | 대구상회 032-885-7904

신포시장의 닭강정은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지켜드는 명물이다. 언뜻 보면 양념치킨과 다를 바 없지만 입에 넣는 순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닭강정의 바삭거리는 식감과 매콤하고 개운한 뒷맛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충독자' 들을 만들어냈다. 3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것과 푸짐한 양도 인기의 비결이다. 닭강정 대자는 14,000원, 소자는 9,000원이다.



신포 닭강정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1-12
문의 | 032-762-5800

한국식 자장면이 탄생한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중화요리를 맛보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 '양꼬 없는 찐빵' 이 아닐까? 차이나타운을 거닐다 보면 한 집 건너 맛집이 있을 만큼 곳곳이 명소로 꼽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만다복이 유명하다. 특히 야채와 조미료가 부족하던 시절 춘장과 고기만을 볶아 면에 얹어 먹던 전통방식의 백년자장(7,000원)이 만다복의 자랑거리이다. 이외에도 해물짬뽕(7,000원), 삼선우동(7,000원)을 비롯해 다양한 코스요리가 마련돼 있다.



만다복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911
문의 | 032-773-3838

자장면의 고향을 찾아서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삼국지 벽화거리

인천은 예로부터 세계 각국의 문화가 들고나는 관문 도시였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길과 바닷길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고 있다. 서구 열강에 의한 개항과 조계지 설정 등 뼈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질적인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인천의 고유한 개방적 정서를 드러내기도 한다.

차이나타운은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군인들과 함께 화교들이 들어와 인천 중구 선린동과 북성동 일대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됐다. 인천역에서 내려 우뚝 솟은 페루를 지나면 곧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거리 양쪽으로 내걸린 홍등과 중국풍 건물 그리고 온통 붉은색의 간판들은 잠시 중국 본토로 여행을 온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삼국지의 주요 장면을 멋들어진 그림으로 표현한 '삼국지 벽화거리' 가 나오고, 제3패루인 선린문을 지나면 자금성, 만리장성, 경극 등 중국의 상징물이 그려진 계단 '스카이힐' 도 만나게 된다. 이외에도 중국식 사당인 '의선당', 개화기의 생활용품을 전시한 '인천근대박물관', 다양한 중국 공연을 즐기고 중국어도 배워볼 수 있는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등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차이나타운 언덕바지에 자리한 자유공원까지 산책을 즐기는 시간은 한 두 시간이면 충분하니 가벼운 주말 나들이로 손색이 없다.

차이나타운에서 원조 자장면을 맛보고 찾아가볼 만한 곳은 인천종합어시장이다. 수도권 유일의 산지 어시장으로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살 것이 없어도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 즐겁다. 선어부, 젓갈부, 페류부, 건어부 등으로 나뉜 수백 곳의 점포들은 흥미로운 전시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 비린내 하나 없이 깨끗한 것도 인천종합어시장의 자랑거리이다. 펄떡이는 활어와 흥정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정겹고 흥겨운 삶의 향기로만 가득하다.

문의 차이나타운 032-810-2853, www.ichinatown.or.kr
인천종합어시장 032-888-4241~3, www.asijang.co.kr



최전방의 정예 용사들을 만나다

강북지방본부 전곡지부



왼쪽부터 박종현 조직부장, 김기환 여성부장, 정택조 지부장, 김산성 사무부장, 이형택 대의원



하나같이 까맣게 그을린 얼굴,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듯한 눈빛. KT 노동조합의 조끼가 아니었다면 최전방의 군인들을 만난 것으로 착각했으리라. 전곡지부 23명 조합원들의 이야기이다. 때로는 오랜 시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전우처럼, 때로는 작은 시골마을의 스텝없는 촌부들처럼 뭉치고 어울리는 이들이 해내지 못할 일은 없을 것만 같다.

전형적인 군사도시, 연천군 전곡

전곡지부가 자리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로 향하는 길은 예상외로 멀었다. 직선거리로는 얼마 안되지만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지나 연천군으로 이어지는 3번 국도는 수시로 신호등이 막아서며 속도를 더디게 했다.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파주시와 양주시 3개 시군과 인접한 연천군은 전방에 길이 60km에 달하는 북방한계선이 버티고 있는 전형적인 군사도시이다. 계절은 봄이었건만 들판에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포사격 훈련이 있는지 쿵쿵 하늘을 울리는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한적한 도로에는 군용 트럭이 심심찮게 지나다니고 있어 최전방에 당도했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정택조 지부장은 “이곳으로 발령이 나면 한탄강을 울면서 건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교통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버스는 30분에 한 대, 기차는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을 정도죠. 겨울에는 영하 20℃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아 동상에 자주 걸리기도 합니다. 면적은 서울의 1.2배이면서 인구는 4만 5,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니 활동 범위는 넓고, 주민 연령대가 높아 실적을 올리기도 어렵죠.”라고 설명했다.

김산성 사무부장도 “GOP는 물론 비무장지대의 GP에까지 KT 시설이 들

어가 있어요. 철모에 방탄복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하기도 하죠. 한 번 들어가려면 사단에 보고하고 신원조회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 장애가 발생해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과 긴장 관계라도 형성되면 작업하는데 더욱 애로가 많아요.”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곡지부는 고객컨설팅팀과 특별기동팀 2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23명의 단출한 조합원들이 지부를 꾸려가고 있다. 여건이 이렇다 보니 여성 조합원이 없음에도 남성인 김기환 조합원이 여성부장을 맡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23명 가운데 연천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은 단 6명뿐이다. 대부분 서울, 의정부, 동두천에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0분을 달려와 출근을 한다.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만큼情은 두 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여건이 열악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았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공고해진 끈끈한 정 때문이었다. 전곡으로 올 때는 울면서 한탄강을 건너왔을지라도 한 번 정을 붙이면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전곡지부란다. 김산성 사무부장은 “전곡에서 만 26년을 근무했어요. 지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옮겨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처럼 가족적인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라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정택근 지부장의 역할이 컸다. ‘화합’과 ‘나눔’을 모토로 지부를 운영하며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단다. 박종권 조직부장은 “현장에 일손이 부족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서, 지부장이 지부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리도 잘해서 각종 모임 때 맛깔스런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기도 하고, 조합원들의 복귀 시간에 맞춰 차나 라면을 끓여주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환 여성부장도 “지부장과는 20년 지기 동료인데 조합원 일이라면 사사로운 것까지 꼼꼼히 챙기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해결사예요. 때로는 너무 챙겨줘서 부담스러운 정도입니다.”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요 데이(day)’도 전곡지부를 뚫돌 뭉치게 하는데 큰 몫을 한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 간담회와 함께 회식을 즐기는 것이다. 이 모임에는 지부장, 지사장(탁기홍)뿐 아니라 군 통신 관련 부서관, 군청의 통신담당자, 각 지역 이장 등을 초청해 민원을



청취하기도 하고, 컨설팅팀 RM요원을 초대해 상품 관련 내용을 듣기도 한다. 조합원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마당인 것이다.

전곡지부 23명의 조합원들은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민을 거듭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땀 흘려 넘어야 할 산이지 앞을 가로막은 벽이 아닌 것이다. 적은 인원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을 나누고 웃으며 일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



Interview _ 전곡지부 정택근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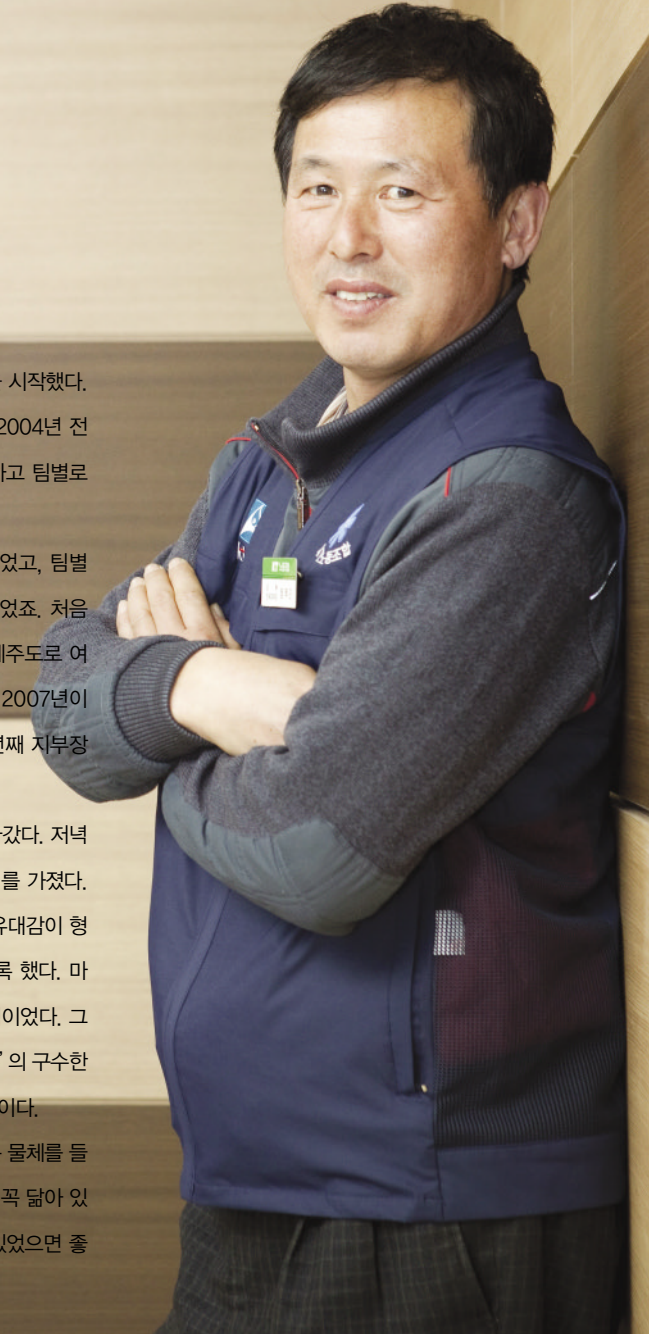
지부를 하나로 묶은 전곡리 ‘촌장’

정택근 지부장은 1990년 KT에 입사해 동두천지부 대의원으로 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정확히 전달해줘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2004년 전곡으로 옮겨 왔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팀별로 어울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전곡에 와서 기술요원 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모임도 없었고, 팀별로 아무런 유대가 없었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시도한 것이 부부동반 여행이었어요. 총무를 맡아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죠. 그때 조합원과 그 가족들로부터 지부장 출마를 권유 받았어요. 2007년이었는데 마침 그 해에 선거가 있어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렇게 5년째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갔다. 저녁 때만 되면 특별기동팀과 고객컨설팅팀의 조합원을 2명씩 불러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가 오고가고 술잔을 나누기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됐다. 지부수련회에도 부서장들뿐 아니라 23명의 조합원이 모두 참석토록 했다. 마음의 담은 낮추고 모두가 어울리는 마당을 만들고자 했던 정 지부장의 노력이었다. 그래서일까. 전곡지부에는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촌’의 구수한 냄새가 난다. 정택근 지부장에게서 촌장의 이미지가 엿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 지부장이 생각하는 지부장의 역할은 ‘지렛대’이다.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는 그간 정 지부장이 전곡지부에 쏟은 헌신과 꼭 닮아 있다. “제가 있음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큰 바위를 보다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포탄의 두려움이요? 고객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요!

전곡지부 특별기동팀 김은배 조합원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던 어느 날, 김은배 조합원은 FTTH 공사를 하기 위해 횡산리로 들어갔다. 최전방인 연천군에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한 민통선 마을이었다. 횡산리가 제 2의 연평도가 될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던 때였지만, 전날 고객과 약속을 했기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을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을은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운 좋게 한 노인을 만났는데 저희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지금 북한에서 포탄이 날아올지도 몰라 마을사람들이 모두 대피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광 인터넷 설치 못하고 그 분을 차에 태우고 급히 마을을 빠져나왔죠. 얼마 후 마을에 KT에 대한 소문이 짝 퍼졌어요. 그 노인들이 마을사람들에게 KT를 칭찬하고 다니신 거였어요. 포탄이 떨어진다는데도 KT직원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고 말이지요. 그 후로 횡산리에서는 100% 저



희 상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 면적의 1.2배나 되는 넓은 작업 범위와 부족한 인원, 군사도시 특유의 고층과 난관을 이야기하는 김 조합원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1990년 10월 동두천 전화국에 입사해 2003년 연천으로 전보되어 10년 가까이 ‘낙후지역’인 전곡에서 특별기동팀으로 뛰고 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담담한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2월에는 멀쩡한 전주를 뽑아야 하는 일도 있었어요. 군에서 느닷없이 연락이 와서 KT 전주가 GOP의 철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밖으로 빼달라는 거예요. 북에서 넘어올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곳이었는데 전주를 타고 철책을 손쉽게 넘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군사지역으로 들어가면 식사할 곳이 없어 군인들과 ‘짬밥’을 먹기도 하고, 야간에 급하게 요청이 와서 GOP에서 작업을 할 때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죠. 체감온도 영하 30°C 이하의 매서운 겨울 추위로 애로사항이에요. 전주가 열어서 부러지진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연천군은 최전방인 만큼 깨끗한 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외지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다. 외진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선로를 수 km씩 깔아야 하는 상황도 부지기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우리 상품을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빠르게 조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고객님들도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시곤 해요. 그럴 때면 힘든 것도 잊고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김 조합원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밝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 때문이다. 동료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서로 돕는 분위기가 전곡지부에는 가득하다고 그는 말한다.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운동, 그것이 바로 농구다

KTBT농구동호회

2010-2011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부산 KT소닉붐이 우승을 차지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승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KTBT농구동호회 회원들 역시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신나고 기뻐할 터. KT소닉붐의 값진 승리에 힘입어 이들도 올해는 더욱 부지런히 코트 위를 달릴 작정이다.



평균신장 180cm의 선수들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위치한 배화여대 체육관에서 드리블 소리가 요란하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 맺힌 선수들이 한창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몰아쉬는 숨소리가 거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를 울리는 부저소리와 함께 한 쿼터가 끝났다. 점수는 39:34. 잠깐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곧이어 울린 휘슬소리에 다시 코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선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쏘아올린 3점슛이 성공하자 여기저기서 “나이스”, “굿 샷” 등을 외친다. 이어지는 속공과 치열한 골밑 싸움... 그렇게 경기는 계속됐고, 6시가 돼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KTBT농구동호회는 평균연령 30대 초반의 젊고 건장한 팀이다. 회원들의 평균신장은 180cm로, 가장 큰 회원은 190cm에 이른다. 그렇다고 모두 장신선수들만 포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NBA에서도 그렇듯 좋은 기량을 발휘하며 활약하고 있는 단신선수들도 적지 않다.

1992년에 결성된 동호회에는 현재 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매월 홀수 주 토요일에 배화여대 체육관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데, 2시 30분부터 모이기 시작한 회원들은 6시까지 종일토록 농구에만 매달린다. 정기모임과는 달리 홀수 주 화요일 저녁에 갖는 사회인농구동호회와의 교류전에서는 이보다 좀 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다. 이들의 실력은 아마추어농구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YMCA직장인농구대회 8강 수준. 정수호 총무는 “10팀씩 3개 조로 나뉘어 1년 동안 리그경쟁을 하는데, 우리 동호회는 2개 조에 각각 한 팀씩 참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각 조의 상위 4개 팀이 12강에 진출한 후 토너먼트로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8강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올해는 좀 더 분발할 것을 다짐했다.



실력 향상보다는 친밀감 형성이 우선

슈팅가드를 맡고 있는 용인마케팅단의 홍창의 조합원은 동호회 내 스타플레이어로 꼽힌다. 프로농구선수 출신인 그는 월등한 실력으로 코트를 누비며 보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YMCA직장인농구대회에서 늘 득점 1위를 차지하는 베테랑으로, 몇 년 전에는 혼자서 무려 55점을 넣으며 신들린 듯한 득점포를 쏘아 올리기도 했다. 보통 아마추어경기의 점수가 60점대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득점이 아닐 수 없다. 동호회 내 최고령 선수인 시너지경영실 남규택 전무의 열정도 젊은 선수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매번 빠지지 않고 나와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는 그는 나이답지 않은 날렵한 움직임과 패스, 젊은 선수들과의 골밑 싸움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체력과 실력으로 후배 선수들의 감탄을 자아내곤 한다.

이들이 이처럼 농구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 기업고객전략본부의 최규림 조합원은 “짧은 시간 동안 코트를 뛰며 땀을 짖 빼고 나면 더 없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며 “특히, 농구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몸싸움이 심한 운동인데, 그렇게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형성되는 친밀감이 남다르다”고 강조한다. 지난해에 입사한 이상준 신입회원은 “농구는 체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하기에는 다소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매우 열심히 뛰시고 실력도 좋아 깜짝 놀랐다”고 털어놓는다.

이렇듯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KTBT농구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열정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정수호 총무는 “매년 신입사원들이



앞줄 왼쪽부터 정수호(그룹컨설팅지원실), 이용구(기업고객부문 제안컨설팅담당), 이상준(신입사원 연수과정), 황석하(그룹컨설팅지원실), 편도진(신입사원 연구과정) **두번째 줄 왼쪽부터** 남규택(시너지경영실 전무), 최정보(개인고객부문 개인고객전략담당), 최규림(기업고객부문 기업사업관리담당), 이대성(기업고객부문 인프라담당), 김태현(CR부문 대외협력실 공정경영담당)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윤재현(S부문 통합CS전략담당), 김현승(네트워크부문 코어망구축담당), 김춘식(GSS부문 경영지원실), 이준석(기업고객부문 요소기술담당), 이인욱(서울북부마케팅단 광진지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한두 번 나오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하며, “기본적으로 농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참가해 회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해야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올해 KTBT농구동호회의 목표는 우승이다. 목표는 다소 거창하지만, 농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회원들 간의 끈끈한 우정만큼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뛰는 코트 위에는 항상 건강한 에너지와 웃음이 넘친다.



KTBT농구동호회 가입방법
<http://club.paran.com/ktbbc>를 통하거나, 정수호 총무에게 직접 전화(010-6777-9693)나 문자, 이메일로 연락하여 가입할 수 있다. 농구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Interview _ KTBT농구동호회 정수호 조합원

세 번의 부상에도 변함없는 농구사랑

“농구를 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농구서클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대학교 때는 동아리활동을 하며, 또 입사 후에는 KTBT농구동호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농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총무를 맡아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략투자담당 개방형포인트 TFT 소속의 정수호 조합원. 그가 농구를 처음 접한 시기는 초등학교 5~6학년 때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대학농구와 드라마 <마지막삼부>, 만화 <슬램덩크> 등의 영향으로 한창 농구 붐이 일었다. 그 역시 학창시절 내내 농구를 하며 학업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고.

워낙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 다친 적도 여러 번이다. 대학교 때는 왼쪽무릎의 십자인대가 끊어져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오른쪽무릎의 연골판이 손상돼 다시 한 번 수술대에 올랐다. 특히 십자인대 수술 후에는 3~6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니며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지만 농구에 대한 열정만은 사그라질 줄 몰랐다. 재활기간이 길어 수개월간 운동을 못하다가 다시 코트에 섰을 때의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짜릿하기만 하다. 여러 번의 큰 부상에 움츠러들 법도 하건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코트 위를 총횡무진 누비며 농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동호회 운영을 책임지게 될 정수호 총무. 그가 꿈꾸는 동호회는 ‘재미있는 동호회’다. 이를 위해 조만간 근사한 상품을 내걸고 자유투와 3점슛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웠다. 농구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의 친분과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져 모두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동호회로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가 다부지다.



반달가슴곰과 수달이 들려주는 지리산 이야기

〈KT지리산수련관〉과 함께 하는 지리산 에코투어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민하는 '로하스'에 이어, 환경과 미래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생활방식 '에코'가 뜨고 있다. 과거, 유명 관광지들을 돌며 '빨리' 구경하고 사진 '많이' 찍는 것이 알찬 여행이었다면, 요즘은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며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느린 여행이 인기다. 살랑대는 봄기운에 떠밀려 주말 가족 여행을 계획한다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에코투어에 동참해 보자. 어른은 시골의 정취와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은 자연 속에 살아 숨 쉬는 생태체험으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리산에코투어를 추천한다.

섬진강 수달 만나기

섬진강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의 '마지막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2001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섬진강 일대(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등) 1.83㎢가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어른 수달 한 쌍과 새끼 2마리 등 4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통해 다양한 생태 탐방프로그램(사전예약)을 이용할 수 있다. 생태환경관에서 수달의 서식·생태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린투어를 통해 다양한 자연생태체험을 할 수도 있다.

운이 좋다면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호)와 붉은 부리를 가진 흑고니(천연기념물 201호, 멸종위기 야생동물)를 만날 수도 있다. 지난 2월 곡성의 섬진강 유역에서 흰꼬리수리와 수달이 나란히 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

<http://www.me.go.kr/ys> | 전화 : 062-410-5114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인사하기

천연기념물 329호인 반달가슴곰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이다. 국립공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지리산반달가슴곰 복원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14마리가 자연적응 중이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는 반달가슴곰복원 프로젝트와 함께 생태전시관,

생태학습장, 각종 탐방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멸종위기종생태관에서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반달가슴곰생태학습장에서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위치를 추적하는 체험과 동면굴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갖춘 곳에 반달가슴곰생태학습장이 조성되어 반달가슴곰의 생태적 특성과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탐방프로그램은 동면기간(12월~3월)을 제외한 4월~11월까지 전화와 현장 접수를 통해 운영된다. 특히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야생동물 자연학교〉에서는 우리 땅에서 사라져 가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는 다양한 탐사프로그램이 운영되니 자녀들의 방학기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

→ 국립공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http://www.bear.or.kr> | 전화 : 061-783-9120





섬진강 물고기와 친구 되기

섬진강은 진안군 마이산에서 발원해 전북, 전남, 경남의 3도 유역을 거쳐서 500리 물길을 이루는 강이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강으로 알려져 있다. 강 종류에 해당하는 구례군 일대의 섬진강은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를 흐르는 100리 물길이 푸른 산을 굽이돌며 반월형 백사장을 수놓는다. 은어, 송어, 붕어, 잉어, 장어, 참게 등 30여종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다.

구례어도

구례군 광평리에는 길이 160m, 너비 10m의 S자형 계단식 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일정한 수위와 유속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물고기 도로다. 수중 카메라와 생태 관찰경을 통해 피라미, 메기 등 물고기의 이동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다.

→ 전남 구례군 광평리 섬진강 일원

토산어류생태관

섬진강에 서식하는 토산어류 자원의 보존을 위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이 운영되고 있다. 토산어종전시장, 부화장, 영상전시관, 표본전시관 등을 둘러 볼 수 있다.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12번지 | 전화 : 061-781-3666

산 좋고 물 맑은 KT지리산수련관

〈kt지리산수련관〉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자락 서남단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지리산 노고단과 섬진강 사이에 위치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KT지리산수련관은 IT시대를 선도하는 KT 사원 가족의 심신수련과 직원연수, 세미나, 대고객 홍보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 시설, 다양한 휴게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

→ 전남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 58-2



자연과 함께 숨쉬는 섬진강 주변 관광지

섬진강 수달과 토종물고기,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만났다면 이제 지리산과 섬진강 주변 관광지를 둘러볼 차례. 이 일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최참판댁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는 섬진강이 주는 혜택을 한 몸에 받은 땅이다. 이곳에 위치한 최참판댁은 지리산 남부능선의 대미에 해당되는 성제봉 아래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지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으로도 유명하다. 한옥 14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후기 우리민족의 생활모습을 담은 초가집, 유물 등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도 조성되어 있다. 옛 돌담을 덮고 있는 담쟁이가 정겹고 최참판댁 마당에서 내려다보는 평사리의 전경에서 평화로운 옛 고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화개장터

화개장터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를 이어 주는 전통시장이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하나로 전국의 어느 시장보다 많은 사람이 붐볐던 곳이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도로변은 봄날이면 환상적인 벚꽃터널을 이룬다. 옛날 시골장터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장터에는 국밥집, 도토리묵, 재첩국집, 주막, 옛장수, 산나물, 녹차 등의 특산품점을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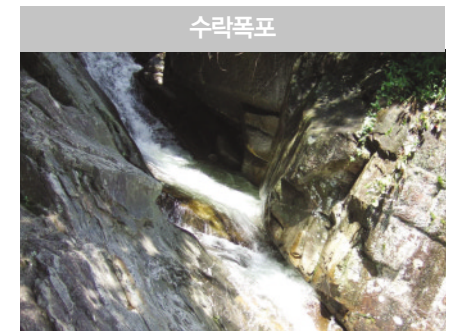


산수유 마을과 섬진강 벚꽃길

구례군 산동면은 전국 최대의 산수유 군락지다. 산수유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중 하나로 2월말이면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해 4월 초까지 만개한다. 11월에는 나무마다 새빨간 루비 빛 열매가 총총 매달린다. 3월 중순이 되면 산수유꽃 축제가 열린다.

이른 봄 노란 산수유 꽃이 질 무렵 섬진강변을 따라 하얀 벚꽃이 만발한다. 이 무렵 섬진강변 벚꽃축제도 열린다. 섬진강 벚꽃길은 곡성에서 하동까지 이어지는 국도 17호선과 19호선 강변길

을 따라 만개한다. 봄 향기를 느끼며 환상적인 드라이브를 경험할 수 있다.



수락폭포

산동면 원촌마을에서 4km 거리인 수기리에 위치한 수락폭포는 하늘에서 은가루가 쏟아지는 듯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높이 15m의 폭포로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낙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신경통, 근육통, 산후통에 효험이 있다 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동편제 판소리의 대가인 국창 송만갑 선생이 득음하기 위하여 수련했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Voices of Readers

독자엽서 당첨자

- | | | | |
|-----|------------------------------|-----|---------------------------|
| 김명규 | 전북 익산시 영등동 | 우창훈 |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KT안성지사 |
| 박성환 | 충남 천안시 쌍용동 남천안 윤희팀 | 민형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 NSC 고객가치팀 |
| 최관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 이상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KT남수원지사 |
| 손희동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서부산네트워크서비스센터 | 손정화 |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KT구로지사 |
| 배정완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남사업지원센터 IT기술팀 | 최용두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KT서초지사 소호팀 |
| 양재영 |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KT안성지사 | 변수정 |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 |
| 류성민 | 경남 양산시 중부동 KT양산지사 | 서정음 | 충남 당진군 읍내리 KT당진지사 |
| 문연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2동 | 장복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 NSC 고객가치팀 |
| 김순덕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KT원주지사 | 박정우 | 경기도 안성시 종리동 KT안성지사 |
| 강삼희 | 전북 진안군 군상리 | 오상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 NSC 고객가치팀 |



생각하는 게임 '스도쿠'

스도쿠란 가로, 세로 각각 9칸씩 총 81칸으로 이뤄진 정사각형입니다. 다음 3가지의 규칙에 따라 가로와 세로 줄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적어 넣어보세요.

- 규칙 1)
9칸의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규칙 2)
9칸의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규칙 3)
3x3칸으로 된 작은 상자(총9개)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합니다

1		4		3		6		7
3		6		4		8		
		7	9	6		8	1	3
		8				5		3
2	4			7			8	6
		5		6		2		
		6	7	3		1	4	5
9		2		5		3		
4	5			8			1	9

Sudoku Puzzle

KT임직원을 위한 다운플랜 상조서비스 안내

다운플랜 운영방향



운영 현황 및 장점

- 다운플랜은 최소한의 운영비(가입신청서 등 인쇄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만 공제
- 다운플랜은 상조의전에 대하여 단체로 의전회사로 의전 대행
- 회원은 다운플랜에 상조가입 및 다운플랜은 모든 회비를 은행에 적립

기타사항

- 경조사비는 신규 가입 시에 한하여 개인이 50% 부담하고 회사에서 50% 지원
- 경조사 지원 신청 시 1인 1구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12,500원을(총150만원) 임직원에게 지원
- 경조사 지원은 재직기간 중 지원
- 임직원이 납부한 원금의 보존과 상조회사의 중간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 (주)다운플랜 설립
- 상조회사의 중간마진을 최소화하여 조합원에게 최대의 혜택 부여
- 가입 대상은 KT임직원 및 퇴직사우
- 본인 희망 시 2구좌 이상 신청 가능
- 시행시기는 2011년 5월 25일 부터 임금에서 공제

